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대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대북 전략적 접근은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 접근 방식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과연 대북 전략적 접근을 해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인민'은 90회 이상 언급했다. 인민 중시와 핵·미사일 언급 자제는 중국과 국제사회에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반대와 준비 부족이라고 했다. 북한은 네 차례의 인공위성과 한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경험이 있다. 연초부터 로켓 발사를 준비해 왔다. 갑작스러운 기술적 준비 부족 운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킨 사례는 없다.

북한과 중국은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동시에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시점에 맞춰 '우호·협력 강화'가 담긴 대북 축전을 공개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당일 늦은 밤에 류윈산을 접견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우호를 실천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고위층 간 긴밀한 교류와 분야별 실무협력 강화도 덧붙였다.

류윈산 상무위원은 김정은 제1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노동당의 지도하에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높이 평가했다. '전통계승, 미래 지향, 선린 우호, 협력 강화'의 16자 방침하에 양측 간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대한반도 정책 3원칙도 분명히 했다. 갑작스런 북중관계의 변화는 양측 간 물밑 접촉의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게 '혈맹 관계 복원'을 선물하고 북한은 중국에게 '로켓 발사 잠정 중단'을 선물한 듯하다.

중국의 '신형대국론'은 북한이 혈맹국가가 아니라 보통국가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론은 북한이 '부채'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다.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국가를 선택한 것은 향후 대북 압박·제재가 아닌 대화·협력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화보다 압박에 무게중심을 둔 공세적인 공동성명이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미 정상이 북한 문제만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국방위원회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같은 공식기구를 통해 반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은 지난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에게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음을 공개했다. 북미 간 뉴욕 채널을 통한 제안인 듯하다. 북핵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평화협정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미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의회청문회에서 평화협정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평화협정 논의를 거부한 셈이다. 성김 대표는 지난 9월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만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남과 북은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민간급의 교류도 확대될 조짐이다. 특히 민간급의 행사에 당국자의 참여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8·25 합의 제1항 당국회담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인 반응은 없다. 남북한 모두 12월은 한 해를 총결산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다. 당국회담의 적기는 11월이다.

북한은 당국 예비회담으로 갈지, 곧장 당국회담으로 갈지, 당국회담과 별개로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으로 갈지 고민할 듯하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한·중·일 정상회담,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 등이 당국회담의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북한을 당국회담으로 이끌어 내면서 8·25 합의 이행을 추동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전략적 접근에 달려 있다.

의료칼럼

건강한 발 가꾸기

윤 형 조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정형외과장

직장인 서모(32)씨는 여자친구와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가을휴가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운동화를 신으면 발이 아프다'는 이유로 야외활동을 심하게 반대한다. 서씨는 "평소 하이힐을 신고 근무하는 사람이 운동화를 신는 것만으로 발이 아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앞뒤 맞지 않는 핑계를 대니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발이 장기간 자극을 받으면 발 모양이 휘어지거나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편해 보이는 운동화도 이처럼 변형이 일어난 발에서는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서씨 여자친구의 말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발의 무리한 사용과 잦은 충격으로 인해 발바닥에 분포한 섬유띠에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은 최근 5년간 큰폭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17만 8638명이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7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야외활동량 증가와 함께 증상을 인지하는 경우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도 높은 운동이나 딱딱한 충격에 의한 근육 손상이 원인이지만, 장기간 하이힐이나 구두를 착용함으로써 발의 일부분에 하중이 집중돼 발생하기도 한다.

엄지발가락이 둘째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통증이 발생하는 무지외반증 역시 현대인의 신발 착용 행태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하이힐은 물론 플랫슈즈, 스니커즈 등의 잦은 착용도 원인이다. 굽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발볼이 발 모양에 비해 좁을 때, 체중이 포함된 하중을 견디며 서 있는 시간이 길 때 무지외반증이 진행될 수 있다. 무지외반증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09년 4만 1657명에서 2013년 5만 5931명으로 연평균 7% 이상 증가했다.

피부질환 등 일반적인 질환이 걷기 활동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무좀이 대표적이다. 엄지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내성발톱은 선천적인 발톱 모양이 원인이지만, 발톱 양끝을 지나치게 짧게 깎거나 발톱이 조이는 신발 착용 습관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발톱 무좀을 방치했다가 발톱 모양 자체가 변형돼 내성발톱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적절한 치료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무지외반증 초기 증세는 심하지 않지만 돌출이 심해지면 튀어나온 부위가 지속적으로 신발 등 외부 물질에 닿아 염증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발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의 적절한 분산을 방해해 자세 변화까지 가져온다. 드물게 무릎이나 엉덩이, 허리 등의 통증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염증을 기반으로 하는 족저근막염 역시 염증으로 인한 통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한 경우 발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만으로 통증이 발생하며,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기도 한다.

족저근막염은 증세가 어느 정도 지속돼 왔는가가 치료의 완성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증세의 심하기와 관계 없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관건이다. 무지외반증 역시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지 말고 원인을 확인해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소 발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2차적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잘못된 자세나 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습관은 되도록 교정하고,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 발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했거나, 장기간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자신만의 발 관리법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휴식을 취할 때 발바닥에 공모양의 기구를 굴림으로써 긴장감이 이완되도록 하고, 발의 모양에 맞는 보형물을 사용해 발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증상이 상당히 발전됐을 때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받고, 심각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에 수술이나 교정 등의 치료법을 적용해볼 수도 있다.

기 고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탈 막으려면

이 태 연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세계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이 인류 역사상 청년인구가 가장 많고,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한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도 향후 10년 이상 다른 연령대나 이전 세대들에 비해 더 큰 실업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세계은행의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실업률이 약 3% 수준인데 청년실업률은 약 10%대에 달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한다. 힘들게 채용한 인재도 생산성이 올라가는 직급인 대리나 과장급이 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이직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우수 인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거래처도 함께 이탈하거나 중요 기술이 유출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중소기업 200곳을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의 35%가 '최근 3년간 핵심 인력의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2명의 핵심 인력이 이직했고, 1명이 떠날 때마다 회사 매출도 평균 2억7000만원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직원들의 이직 사유는 급여 문제라는 답변이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근무환경(21%), 스카우트 제안(15%) 순이었다.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중소기업이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직장으로 인식되지 않고 개인과 함께 성장해가는 평생 일터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자원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작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1대 2, 또는 그 이상의 비율로 5년 이상 돈을 적립하면 나중에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연 2.33%의 복리이자를 주는데, 은행 예금금리가 2%도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조건이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는 사업주에게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부담 공제 납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사업주 납부금의 25%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세테크 상품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핵심 근로자가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는 이자소득세도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 8월21일로 출범 1년을 맞은 '내일채움공제'는 우리 광주·전남지역에서 276개사 541명이 가입했고, 전국 3500여개 중소기업에서 86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점차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의 태양광설비업체인 A사는 핵심인력의 관리 및 장기재직 유인책을 고민하다가 종업원 123명 중 12명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켰다. 제조 중소기업뿐 아니라 메르스 피해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은바 있는 광주 소재 병원들도 핵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자 1만명으로 가입 확대한 뒤 향후 5년 내 6만명 가입, 7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힘을 합쳐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고, 중소기업인도 우수 인력과 함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내일채움공제가 이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社 說

친환경농식품으로 개방 파고 헤쳐 나가자

한중 FTA 등 우리나라 농식품 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이 높은 전남의 친환경농식품 수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를 육성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만큼 추진을 서두를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식품 수출 공공기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은 '2015국제농업박람회'에 맞춰 'FTA와 전남농업 상생발전 전략'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창완 선임연구위원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와 수출기업을 갖춘 농식품 전문 업체 육성으로 개방 파고에 직면해 있는 전남 농업의 활로를 찾자는 방안을 제기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 기업은 농민과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등을 통해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기지 조성에 나선다. 이어 최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 등 현지 거래선 확보와 통관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할 역량을 갖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현지 유기식품 인증비 지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소포장 위주 친환경농식품 포장재 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대형 농식품 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로 유통경로를 개척하고, 인터넷쇼핑몰 및 SNS 등 새로운 채널 활용으로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시장 개방을 앞두고 친환경농식품 수출 활성화는 우리 농업 전체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민간업체가 생산자 조직을 원만하게 결성하고, 복잡한 수출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란 버거운 일이다. 당연히 관련 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코트라 등이 공동으로 실무기구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복지체제 미흡…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들

우리나라는 복지체제가 미흡한 탓에 늙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50%에 가까운 반면 주요 복지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활하는 '이전 소득'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복지국가의 노인들이 공적연금 등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낼 때 한국의 노인들은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네덜란드 등 12개 국가 노인가구(65세 이상)의 노후 소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은 46.9%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로 이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등 비생산활동에서 얻는 '이전 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비중은 48.6%에 그쳤는데 이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은 28.8%, 사적 이전소득(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19.8%였다. 복지선진국들의 공적 이전소득이 73~90%,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0~0.4% 수준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 노인들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높은 데다 가족부양을 책임지려는 전통적인 정서와 무관치 않지만 노인부양의 책임을 국가보다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분석 결과는 한국의 노인복지가 얼마나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새삼 느끼게 한다.

대다수의 직장인이 50대 중반 이후 쫓기다시피 물러나는 작금의 상황에서 노인들의 빈곤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정부 역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빈곤 노인들이 복지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솟대문학

초년 기자 시절, 한 장애인을 인터뷰 한 적이 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는 낡은 이불 위에 누워 기자를 맞았다.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얇은 소식지를 발행 중이었다. 소식지에는 자신이 쓴 시와 소소한 일상을 다룬 수필도 실었다.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에게 글씨를 쓰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입에 볼펜을 물고 타자기를 쳐서 글을 쓰는 고단한 작업이었다. 그래도 그는 글을 쓰는 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듯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시 한편에 가슴이 찡하다. "천상병 님은/ 막걸리 한 되로/ 하루를 살고/ 나는/ 아픔 한 말로/ 하루를 산다/ 천상병 님은/ 막걸리에 취해 시를 쓰지만/ 나는/ 아픔에 취해 시를 쓴다/ 시인과 나는/ 늘 취해 살지만/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다"('시인과 나' 김옥진)

'산골 소녀 옥진이 시집'(1987년)으로 유명한 김 시인은 오래전 추락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됐지만 치열하게 시를 쓰며 세상과 대화 중이다.

장애 문인들과 세상을 이어 주었던 문예지 '솟대문학'이 100호(2015년 겨울호)를 끝으로 폐간한다는 소식이다. 1급 지체장애인인 방귀희 씨가 동료 장애인 문인들과 출간하기 시작한 '솟대문학'은 지난 1991년 4월 창간 후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100호를 펴냈다. 애초 방송작가로 일하던 방 씨는 방송국으로 사연을 보내는 많은 장애인들이 '글을 쓰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는 걸 보고 문예지 창간을 결심했다.

솟대문학은 잡지 발행뿐만 아니라 구상 솟대문학상과 추천 제도를 통해 200여명에 가까운 문인을 등단시켰다. 구상 문학상은 2003년 폐질환으로 투병하던 고(故) 구상 시인이 몰래 기탁한 발전기금 2억원이 모태가 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올해 탈락 위기에 처했고, 아쉽게도 폐간을 결정했다. 대신 방 씨와 동료들은 문학과 미술·음악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종합지를 만드는 또 다른 꿈을 꾸는 중이다. 100호 기념사에서 "지난 25년 솟대문학은 가난했지만 비루하지는 않았다"고 당당히 밝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